

구약성서와 한국 전통 설화에 나타난 인신제사의 종교적 심층구조에 대한 구조주의 해석: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孫順埋兒)> 설화를 중심으로*

정일승(건신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인물에 대한 전설이나 신화는 수없이 많다. 경주 봉덕사의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을 완성하기 위해 쇧물에 살아 있는 아이를 넣었다는 인신공양의 내용을 담은 전설처럼, 그리스, 로마, 북유럽 신화에 이르기까지 유독 나이가 어린 아이나 처녀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이야기가 많다.¹ 인신공양 이야기는 주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5267).

1 처녀가 희생 제물로 주로 희생되는 이유로는 남성적, 동물적인 성격으로 인한 재난의 발생이 그들의 발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다. 박정세,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111.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인신공양 설화일수록 그 주인공이 여자가 많지만, 인신 제물로 바쳐진 인물 중에 딸아들이나 외아들인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422권 (1994), 192.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에 전해져 오는 인신공양 이야기에는 종교적 색채와 함께 특이하게도 효행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說話)가 효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면, 구약성서에서 인신제사를 언급하는 본문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앙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주목할 만하다.²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인신제사에 대해 이방 종교의 형태라고 단호하게 비판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서 맏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차원에서의 인신제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³ 인신제사는 구약 본문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거나(레 18:21; 신 12:31; 18:19)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레 20:2-5; 왕하 21:6; 사 57:5; 겔 16:20-21)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원전 3천 년 경부터 행해졌던 하나의 관습이었다.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말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민간종교 차원에서의 인신제사에

2 설화(說話)는 쉽게 말하면 '이야기'지만 아무 이야기나 '설화'는 아니다. 설화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나 사회 공동체와 같은 집단의 공동 의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자(文字) 기술 이전의 구전문학이다. 설화는 구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이야기로서 일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서사(敘事)는 문자로 기술되기 때문에 고정적이다. 한국의 '설화'에 대한 정의는 최은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서울: 민속원, 2002), 11 참조.

3 창세기 22장 본문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구약성서 안에 표현된 민간종교에 대해 숨기거나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몰래 제의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가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일부이었으며, 구약 본문이 지향하는 윤리와 실제 고대 이스라엘의 윤리적 정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창세기 22장과 에스겔 20장 25-26절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이 희생 제물을 배후에서 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인신 희생 제물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는 Roland de Vaux, *Studies in Old Testament Sacrific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1964), 52-90 참조.

대한 인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⁵ 인신공희담의 유형 중에는 제물이 되는 사람보다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주인공이 되며, 이야기의 주제 역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창세기 22장에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한국의 전통 설화에서는 신라의 <손순매아(孫順埋兒)> 설화가 창세기 22장과 여러 면에서 비교해볼 만한 본문이다.⁶

본 연구의 목적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창 22:1-19)과 내적 구조와 특징이 유사한 한국의 <손순매아> 설화를 비교하여, 두 이야기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민간종교 차원의 인신공희의 전통과 그 심층적 의미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⁷ 인신

-
- 5 번제는 가장 오래된 제물일 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에 언급된 유일한 제물이다(욥 1:15 참조).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313-314.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8집 (2000), 151-174.
 - 6 박종수는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의 제3장 ‘히브리 설화의 유형과 구조’에서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가 인신공희담 및 성소유래담으로써 ‘발단-전개-절정-결말-증거’의 플롯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다. 반면, 박정세는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에서 창세기 22장을 한국의 <벼락 맞은 아버지> 전설과 유사하다고 보고, 희생 주제, 희생 제물, 시간과 장소, 희생 방법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박종수,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 (안양: 글터, 1995), 83-85;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42-151. <손순매아> 및 <벼락 맞은 아버지> 모두 창세기 22장과 비교 가능한 요소들이 다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에는 <손순매아> 설화가 더 유의미한 적용과 결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7 인신공희는 구비문학 연구에서 인신공양, 인신제사, 인신희생 등 다른 용어로도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인신공희’를 주로 사용하되, ‘제’의 또는 ‘제사’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인신제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인신공희라는 용어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나 특정 신격에 인간을 바칠 때 주로 사용된다. 희생효(犧牲孝)의 특징이 나타나는 <손순매아> 설화의 경우 범주상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논쟁의 여지도 있겠지만, 인신공희의 대표적인 형태인 ‘매아(埋兒)라 는 희생제의의 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손순매아> 설화를 ‘인신공희’ 설화의 원형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구비문학 연구에서도 <손순매아> 설화를 인신공희 및 희생제의의 전통과 관련하여 다룬다. 신호림, 「희생제의 전통의 와해와 기괴한 효행담의 탄생: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1권 (2016), 243-245 참조.

제사와 같은 고대의 희생 제의를 담은 이야기가 보여주는 근원적 사유 방식이나 세계관은 이야기 전승 집단의 원형적, 종교적 심성 또는 상상력(prototypical imagination)의 심층구조를 드러낸다. 원형적 상상력은 인간의 문화에서 최초의 원형들과 관련된 사유로서 인간의 정신 속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설화에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두 문화권의 원형적 상상력을 지배하는 바탕에 대해 일정 부분 조명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 전통 설화에 내포된 원형적 의미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주의 비평의 방법론 중에서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semiotic square model)의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동향 및 구조주의 비평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레마스의 이론을 활용하여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과 <손순매아> 설화를 해석할 것이다. 그 후에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제사의 원형적 의미체계를 잘 드러내는 주요 항목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 해석을 위한 구조주의 비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사건은 매우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삭의 ‘결박’을 의미하는 ‘아케다’(Aqedah)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해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왔다. 창세기 22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다양하다. 자료비평적, 전승사적, 편집비평적 접근, 인신제사에서 동물 제사로의 종교사적 전환, 모리아 땅의 산과 성전 산과의 관계, 본문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뿐만 아니라 해당 본문의 수용사적 접근까지 개인 연구자가 단기간에 살펴볼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이 축적되어 왔다.⁸

창세기 22장이 다루고 있는 인신제사처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부류의 인신공양 설화가 문헌 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한국 전통 설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비문학 및 국문학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인신제사를 주제로 하는 인신공희담을 신앙가치담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인신공희담의 유형을 수신, 괴물, 종만들기, 뚝썰기, 매아(埋兒) 등의 부류로 나누었다.⁹ 최영희는 인신공희 설화를 윤리, 종교의식, 영웅담과 결부된 인신공희로 구분한다.¹⁰ 한국 민담의 희생 제의에 관한 신학자의 연구로는 박정세의 연구가 있다. 박정세는 희생 모티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한국의 희생 설화를 민담, 신화, 전설로 구분하여 희생 설화의 분포와 그 희생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¹¹ 그 외에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유고 연방,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인신 희생 관련 서사와 비교한 연구 등,¹² 인신공희 관련 설화 연구는 다양한 분류 방식 및 이론적 이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학 또는 성서학 전공자가 한국의 설화와 구약성서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박정세, 박중수 등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면 아쉽게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의 학문적 경향인 융합과 통섭의 흐름은

8 방대한 분량의 창세기 주석에서는 창세기 22장에 대한 기존의 해석학적 접근이나 연구사를 간략하게라도 다루고 있으며, 「구약논단」에서도 창세기 22장 '아케다' 이야기에 대한 연구사가 간략하게 언급된 논문이 있다. 서명수,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 (2003), 9-10; 우진형,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집 (2009), 133-134.

9 장덕순, 「한국설화문화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70), 16-41 참조.

10 최영희, 「한국 인신공희 설화의 연구」, 「문창어문논집」 17집 (1980), 137-153.

11 박정세, 「희생설화와 희생양상」, 「한국민속학」 17권 (1984), 65-74.

12 박중성, 「한국·동유럽 구비사가 비교연구의 한 측면: 인신공희 주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5권 (2002), 387-427.

동양적 사고의 오랜 전통이며 히브리적 사유 방식이지만,¹³ 구약학의 세부 주제를 충실히 연구하면서 생소한 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많다. 구약 학자는 아니지만, 선교학 전공자인 박정세의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는 성서의 이야기와 한국의 민담을 비교하여 내용상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¹⁴ 박중수의 저서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연구」도 창세기의 다양한 본문을 한국의 전설, 민담, 신화와 비교하여 검토한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저서의 특성상 각각의 설화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심화된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¹⁵ 구약성서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의 민담 및 설화와의 비교연구는 일부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간략하게 소개되었지만, 연구의 특징이나 방법론에 따라 분류할 만큼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학술 논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구약의 인신제사를 한국의 인신제사와 비교한 논문으로는 하경지의 연구가 있다. 하경지는 사사기 11장의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와 한국의 〈심청전〉을 비교하여,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 두 문화권에서의 인신공희 가해자들과 희생양의 관점을 분석하였다.¹⁶ 현재 이러한 통섭적 연구 주제

13 구약논단에서도 ‘융합과 통섭’에 대한 주제를 다룬 바 있다. 정중호,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 「구약논단」 40집 (2011), 6. 최근 「구약논단」에 향후 구약학의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명수,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85집 (2022), 340-371; 박경식,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구약적 해석 연구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방법을 통한 지도자 교육교재 개발”, 「구약논단」 86집 (2022), 215-245 참조.

14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연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5 서명수,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 「구약논단」 58집 (2015), 212.

16 하경지,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제사: 인신공희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52호 (2022), 241-268.

에 관한 연구 논문이 양적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국내 성서해석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 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심층구조(deep structure, 표층에 드러나는 구조가 아닌, 본문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묶는 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해석하는 구조주의 비평(structuralist criticism), 구체적으로 그레마스(Algirdas Julius Greimas)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semiotic square model)의 개념을 활용하여,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이야기를 한국의 대표적인 인신공희 설화의 하나인 <손순매아> 설화와 비교하여 원형적, 심층적 구조의 의미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¹⁷ 구조주의는 19세기를 지나며 많은 학문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구조주의 비평이 성서해석에 유의미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는 신화적 구조의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야콥슨(Roman Jakobson, 1896-1982)과 같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였고, 특히 레비-스트로스의 「신화론」(Mythologiques)은 신화의 구조주의적 연구를 위한 토대 역할을 해왔다. 성서 본문이 엄밀한 의미에서 신화적은 아니지만, 비신화적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성서 본문 안에서도 신화적 구조와 언어는 작용한다.¹⁸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인 그레마스는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연구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레마스는 행동자 모델, 기호 생성 모델,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과 같은

17 그레마스 기호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의미론적 구조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레마스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문용어는 여전히 한국어 번역 용어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을 가능한 지양하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의 기본 개념 및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언급할 것이다.

18 D. 팻테, 「구조주의적 성서해석이란 무엇인가?」 (이승식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96-97.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적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을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환원시킨 신화적 단위를 음소와 의미소에 비견할 수 있는 신화소(mytheme)라고 이름 붙인다.

개념을 제안하였다.¹⁹

그레마스 기호학은 본문에서 어떻게 ‘의미’가 형성되고 체계화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텍스트에 내재하는 의미 생성 요소들의 의미 작용의 형식을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다.²⁰ 그레마스 기호학에서는 담화의 집합을 텍스트로 간주하고,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텍스트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해서 의미 생성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²¹ 특히,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은 본문 안의 상이한 ‘특징’과 그 특징 간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사각형 모형으로 도식화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다.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은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와 논리적인 분절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모형으로 평가된다.²² 이런 장점으로 인해 영화, TV 드라마, 광고, 애니메이션 등 대중 매체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인문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도 유행이었지만, 국내에서 성서 및 전통 설화 해석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은 구조주의적 해석의 방법론 중에서도 성서 본문에 표현된 신앙이나 종교 및 저자의 신념을 연구할 때 가장 직관적, 시각적으로 종합(synthesis)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²³

19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서울: 민음사, 1998), 246

20 그레마스의 이론은 기호학적 의미 생성 과정을 통해 설명되며, 언어의 의미 생성에 관한 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그레마스 기호학의 ‘의미 생성 행로’는 두 가지 구조, 기호-서술적(이야기체) 구조와 담화체 구조로 구분된다. 그레마스가 기호-서술적(이야기체) 구조 심층의 내재적 구조의 의미생성과정을 의미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하여 도식화한 표상 모델이 바로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이다. 김성도, 「현대 기호학 강의」(서울: 민음사, 1998), 224. 그레마스 기호학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저서로는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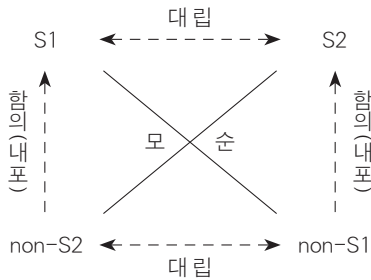
21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서울: 민음사, 1998), 246

22 A. J. Greimas and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0), 29.

23 그레마스 기호학을 활용한 국내 구약학계의 연구로는 박신배, “구조주의 방법과 출애굽

그레마스 기호학에서는 ‘의미’가 상반(대립)관계, 모순관계, 함의관계와 같은 이항대립적 관계로 설명된다. 그레마스에 의하면, 우리 인식의 보편적인 객관성은 절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푸르다’라는 어휘의 의미는 그 어휘와 비교할 만한 ‘검다’ 또는 ‘붉다’와 같은 다른 어휘와의 ‘관계’와 ‘차이점’을 인식하고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²⁴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에서 먼저 기표의 총체성의 세계를 가리키는 대문자 ‘S’는 첫 단계에서 의미의 부재인 ‘non-S’가 모순항으로 설정된다. S축이 내용의 형식 수준에서 분절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 개의 상반된 의소, S1과 S2로 분절된다. 이 두 개의 의소는 분리되어 non-S1과 non-S2, 각각의 모순항을 산출할 수 있고,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에서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²⁵



기 1장 연구”, 「신학과 목회」 32권 (2009), 37-59;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 아서 1장 연구”, 「구약논단」 21집 (2006), 108-124 참조.

24 더 직관적인 예로, 만약 병에 걸려본 경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건강’한 상태와 ‘병든’ 상태의 ‘관계’와 ‘차이점’을 알 수 없기에, ‘건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Daniel Patte, “Structural Criticism”, Steven L. Mckenzie and Stephen R. Haynes(eds.), *To Each Its Own Meaning: Biblical Criticism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83.

25 김성도, *윗글* (1998), 229.

예를 들어, ‘혼돈’이라는 상태의 의미는 그것의 부정인 ‘비(非)-혼돈’ 뿐만 아니라, 다른 상태인 ‘질서’ 그리고 ‘비(非)-질서’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혼돈’이라는 상태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혼돈’(S1)에서 ‘비-혼돈’(non-S1)으로 부정해보고, ‘비-혼돈’(non-S21)으로부터 ‘질서’(S2)라는 의미를 찾아내어, 비로소 ‘혼돈 → 비-혼돈 → 질서’에 이르는 하나의 결과가 생긴다. 그레마스가 심층의 의미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은 네 가지 요소(S1, non-S1, S2, non-S2)의 이항대립적 관계로 이루어지며, 보편적 인식의 객관성은 대상의 절대적 형성이 아닌 상대적 형성을 통해 설명된다. 다시 말해, 의소(S1)를 부정(non-S1)해보고, 부정에 대한 긍정(S2)을 찾을 때 비로소 S2가 형성되고, 반대로서의 ‘S1 대 S2’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레마스의 기호학 이론이 대중 매체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지만, 오히려 이분법적, 신화적 요소와 사유가 많은 한국 전통 설화와 구약성서를 이해하는데 더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3. 창세기 22장과 비교한 <손순매아> 설화의 구조주의적 해석

인신제사와 관련된 설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분포된 이야기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신에게 또는 신적 대상에게 사람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기이한 이야기가 가득한 한국 구비문학 안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원형적 상상력과 의미체계를 찾기 위해서는 성서 및 한국 설화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타민족의 설화와 그에 관한 연구 성과 비교를 통해 보편적인 특징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구약성서 또는 한국 설화만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종합(synthesis)의 과정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표본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편이 비교적 용이하다. 원형으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창세(創世)나 홍수와 같은 주제와 달리, 인신제사와 같은 상대적으로 독특한 주제가 오히려 충분한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모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표본을 통해서도 최소한의 비교의 절차를 거쳐 원형적 의미체계를 어느 정도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 과제도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구약성서 본문과 한국 전통 설화의 의미체계를 비교하며 종합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1) 창세기 22장, ‘아케다’(Aqedah) 이야기

인신 희생 설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격이 직접 인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주로 앞으로 예기되는 재난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집단 무의식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될 때가 많다. 초기 유대 전통뿐만 아니라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도 창세기 22장 본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처럼,²⁶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비논리적, 비이성적이고, 더 나아가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것이다.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에 겨우 약속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다. 힘겹게 얻은 아들을 이제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이를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26 Søren Kierkegaard, *Fear and Trembling*, Alastair Hannay(trans.), (London: Penguin Books, 1985).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창 17:19, 21),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시고 실현하신 후에,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든 상황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자신의 미래를 위협에 빠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을 위험이 있다. 어느 쪽이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위태로워진다.²⁷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 있고 신학적 의미가 강한 ‘아케다’ 사건은 구약성서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된 히브리어 קָטַל(레크 레카/너는 가라)라는 표현으로 12장의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²⁸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시작’을 묘사한다면,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2장은 문맥상 이미 여러 학자가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21장(8-21절)과도 연결된다. 목숨을 위협하는 ‘광야에서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에게 먼저 있었던 것처럼(창 21:8-21), 이제 그의 작은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다(창 22:1-19).²⁹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남은 소중한 아들인 이삭마저 희생시켜야 하는가? 아

27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사이의 딜레마에 주목한 창세기 주석으로는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88;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03-104 참조.

28 카수토(Umberto Cassuto)가 처음 지적했듯이, 창세기 22장 1-19절은 전통적인 자료 비평에 따르면 대부분 J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창세기 12장 1-9절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32.

29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81-182.

브라함 내러티브의 구조상 절정에 해당하는 22장 본문은 이전 본문들과 공통적인 주제와 어휘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연결점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학자들은 반복적인 표현과 모티프를 기반으로 창세기 22장에 대한 다양한 구조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웬함(Gordon J. Wenham)은 교차대구적 구조를 제안하고,³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과 아브라함, 천사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조를 나눈다.³¹ 구조주의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아케다’ 본문에서는 대조적(또는 유비적) 요소들이 본문의 중심에 배열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며, 이러한 대립소들은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이전 본문에서 언급된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문의 해석에 핵심적인 대립소를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 ↔ |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 ↔ |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
| 그를 번제로 드리라 | ↔ | 숫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더니 |
|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 |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
|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 ↔ |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니 |

30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1994), 100.

31 Brueggemann, *윗글*, 186.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잡으려 하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함께 나아가서 돌아왔다

창세기 22장 본문은 무엇인가 확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한다.³² 교리신학적 이해를 논외로 하고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기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신다.³³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 이야기 플롯 상의 긴장감이 해소된다. 창세기 22장의 플롯에는 하나님의 ‘앎’을 통해 발전해가는 흐름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르셨으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이제는 알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결론에서 ‘준비하시는’(히브리어의 의미로는 ‘보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22장은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대조한다.³⁴

유대 전승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역할을 주목했던 것처럼, 많은 창세기 주석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희생’(The Sacrifice of Isaac) 또는 ‘이삭의 결박’(The Binding of Isaac)이라는 표제를 붙임으로써 이삭을 능동

32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는 예는 많이 있다(출 15:25; 16:4; 신 8:2, 16; 13:3; 사 2:22; 2:1, 2; 대하 32:31).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의 목적은 순종을 확인하고(출 15:25; 16:4; 신 8:2; 사 2:22), 두려움을 심어주어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고(출 20:20),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분별하고(신 13:3; 대하 32:31),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신 8:16). 창세기 22장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3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의 견해도 동일하다. 브루거만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임이 아니며, 하나님은 참으로 알지 못하시고 12절에 가서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Brueggemann, 윗글, 187.

34 윗글, 188.

적인 인물이 아니라, 희생되어야 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³⁵ 창세기 22장이 이삭의 ‘희생’에 관한 본문임은 명백하지만, 구조적 차원에서는 이삭의 ‘영적 출생’이라는 요소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창세기 22장의 대립소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구조적으로 ‘희생제사’라는 모티프를 통해 ‘영적 출생’을 강조한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람이 그의 가족의 품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난 아브람의 ‘영적 출생’을 상징한다면, 창세기 22장은 이삭의 ‘영적 출생’을 다루고 있다.³⁶

‘영적 출생’의 측면에서 이삭은 먼저 이스마엘과 대조적이다. 2절에서 하나님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³⁷ 이스마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다. 본문이 이삭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세 가지 표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각각의 용어는 이삭을 21장의 이스마엘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³⁸ 특히, 이 구절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말한다. 왜 본문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처럼 언급하는

35 John E. Hartley,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2), 205; Hamilton, *위글* (1995), 97; John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New York, Scribner, 1910), 327-328.

36 이와 같은 ‘영적 출생’의 주제는 아브람이 포기하는 장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מוֹלָדָת (몰레데트/친족)에 의해 강조된다. 이 단어는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 어근 מָלַד (알라드/낳다)에서 유래했다. 아브람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써 ‘자연적 출생’이 부정되고, ‘영적 출생’이 상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Seth D. Kunin, *The Logic of Incest: A Structuralist Analysis of Hebrew Mythology* (JSOTSup 1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64.

37 본 연구에서 성경 본문의 인용은 「개역개정」의 번역을 위주로 하며, 논의상 필요한 경우 히브리어 원문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자의 사역(私譯)을 보완적으로 제시하였다.

38 창세기에서 ‘사랑하다’(אַהַב/아하브)라는 표현이 처음 언급된 구절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가? 이는 서사적 차원에서는 사실과 다르지만, 본문의 구조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미 22장 이전 본문에서 성립된 이삭과 이스마엘의 본질적인 구별과 대조가 만들어낸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복형제로 족보상으로는 가깝지만, 2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족보상의 거리는 무시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만든다.⁴⁰

이삭은 또한 ‘아케다’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대조가 되며, ‘희생제사’가 이 대조의 중심에 있다. 이삭의 ‘영적 출생’을 위해서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이삭의 ‘죽음’이 필요하기에 ‘희생’은 구조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희생제사’, 특히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인신제사의 문제는 본문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요소가 아닌, 본문의 중심 요소로 모든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의 중요한 초점이다.⁴¹ 인신제사가 실제로 일어나진 않지만, 숫양이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지면서 구조적으로 이삭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상징적으로 이 제사는 완성된다.⁴² 욱신의 부모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반전되지만, 이삭의 ‘영적 출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

39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마엘을 거부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엘리에셀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거부하고 이삭을 선택함으로써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적인 거리를 만들고 강화시켰다.

40 Kunin, 윗글, 94-95.

41 창세기 22장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인신제사가 중요하지 않은 본문의 세부적 요소일 뿐이며, 이 이야기 속에서 인신제사가 동물 제사로 대체되는 문제를 찾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Brueggemann, 윗글, 186 참조. 그러나, 인신제사가 동물 제사로 대체되는 주제는 텍스트에 내재된 핵심 문제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본문의 방식은 아브라함과 모든 독자에게 인신 희생 제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케다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유형의 인간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대체물을 제정함으로써 인간 희생의 관습을 종식시킨다.

42 Kunin, 윗글, 96.

할은 이미 창세기 21장 1절에서 암시되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비록 이삭의 실질적인 ‘희생’이 무산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시도된 희생제사만으로도 이삭의 ‘영적 출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어 이스마엘과 구분된다.⁴³

‘희생제사’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볼 때, ‘희생제사 이전의 이삭’과 ‘희생제사 이후의 이삭’은 다르다. 희생제사 이전의 이삭은 자연적 출생의 결과이고, 희생 이후의 이삭은 신성한 영적 출생과 신적 섭리의 결과이다. 본문에서 숫양은 ‘희생제사 이전의 이삭’과 ‘희생제사 이후의 이삭’의 매개체이며 이삭과 대조적이다. 숫양은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신성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연적 산물이다. 따라서, 숫양은 ‘희생제사 이전의 이삭’과 ‘희생제사 이후의 이삭’을 구조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이삭의 대체물이 된다.⁴⁴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실제 인간의 희생제사를 포함하진 않지만, 이삭이 숫양으로 대체되는 희생제사를 본문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희생제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과 다른 없는 구조적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이야기에서 인신 희생제사가 시도되지만, 결국엔 이삭이 실제로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신제사가 아닌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창세기 22장 이야기는 여호와와 사자와 숫양이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 인신제사를 종식시킨 결과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통해 역설적으로 희생제도가 와해되는 형태이며, 인신제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창세기 22장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

43 윗글, 97.

44 윗글, 98.

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범으로 인식되며, 중요한 가치로서 반복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식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희생이 용인되면서 이 주제가 더욱 강조된다. 희생제외에 선택된 희생양이 아브라함 자신과 매우 가까운 존재인 아들이기 때문에 희생되는 가족을 통해 강조되는 주제는 더욱 명확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 받는 자격시련을 통과한 것이며,⁴⁵ 이삭 역시 비록 숫양으로 대체되었지만, 번제로 자신을 바쳐야 하는 제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⁴⁶ ‘영적 출생’에 걸맞은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서의 자격시련을 통과한 것이다.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이한 모순에 기꺼이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⁴⁷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과정을 통해 아케다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믿음’ 또는 ‘순종’이라는 덕목이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게 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함도 함께 강조한다.

2) <손순매아> 설화

<손순매아> 설화 유형은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달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유형은 큰 틀에서 ‘직접 해결

45 등장인물이 경쟁이나 시험, 또는 통과 의식을 거쳐 일종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에서는 ‘자격시련’으로 정의한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격시련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세기 22장의 문학적 형식은 고대 서사시의 형식으로 구약의 영웅 서사의 형식 중 하나이다. 궁켈(Hermann Gunkel)은 창세기 22장이 원래 여루엘에서의 자녀 희생의 전설이라고 제안하였다. Hermann Gunkel, *Genesis* Mark E. Biddle(tra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239.

46 연로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삭의 동의를 강하게 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건한 아버지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적인 아들을 함께 본다.

47 Brueggemann, *윗글*, 186.

형'과 '간접 해결형'으로 구분되며, '지명 유래형'으로 변형된 유형도 있다.⁴⁸ <손순매아> 이야기는 노부모를 위한 효행 때문에 결국 아이를 희생시키려 하는 비극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문헌상으로 <손순매아>는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이 이야기가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이야기는 신라 이전에도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손순매아> 설화는 「삼국유사」 외에도 다양한 문헌에 실려 있고, 민간에 구전으로도 전해진다.

구약성서의 '아케다' 이야기나 <심청전>에 비해, <손순매아> 설화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설화는 아니다. <손순매아> 설화에 몇 가지 변이 형태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서사 단락을 중심 화소 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1. 흥덕왕 때 모량리 사람 손순(孫順)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2. 어린 아들이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므로, 부부가 의논하여 아이를 파문기로 결정했다.
3. 아이를 묻기 위해 취산(醉山)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땅을 파니 석종이 나왔다.
4. 부부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시험 삼아 그 종을 쳐보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48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온지논총』 26권 (2010), 137.

49 윗글, 127-128.

50 <손순매아>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 명심보감, 동국통감 등 다양하다. 설화의 전승현장도 경남, 경북, 전남, 강원, 충북, 경기 등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아래 내용은 삼국유사 5권 효선편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 상황에 대해서는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1권 (1990), 235-265 참조.

5. 처(妻)가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이의 복이니 아이를 묻지 말라고 하여 되돌아왔다.
6. 석종을 대들보에 매달고 치니 그 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렸다.
7. 왕이 이 아름다운 종소리의 근원을 알아 오게 하니 사자가 그 집 에 와서 살펴보고 사실대로 고했다.
8. 왕은 부부의 효행을 가상히 여기고 집과 식량을 주었다.
9. 손순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내놓아 절을 짓는데 회사하여 홍효사(弘孝寺)라 하였고, 석종을 그 절에 안치했다.
10. 후에 백제의 도둑이 들어와 그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았다.
11. 석종이 발견된 곳은 완호평(完乎坪)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사 구조의 특징은 땅에서 나온 출토물이 이야기의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류상 ‘직접 해결형’의 유형에 속한다. 일부 변이 유형에서는 아이가 방울 소리를 듣느라 할머니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보양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유형도 있다.⁵¹

〈손순매아〉 설화도 아케다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특정 가치나 덕목을 더 귀하게 여겨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유사하며, 대조적인 요소들의 배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배고픈 어머니	↔	할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아이
이 아이를 땅에 묻어버리고	↔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배를 채워드립시다		아이의 복인 듯하니 아이를 묻지
		맙시다
어머니(다시 구할 수 없는 존재)	↔	아이(다시 얻을 수 있는 존재)

51 노영근, *윳글*, 129.

아이를 등에 업고 서북쪽에 위치한 ↔ 아이와 종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
 취산 북쪽 들판으로 가

종은 나무 위에 걸어놓고 시험 삼아 ↔ 집으로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드려보니, 곧 은은하고 두드리니 종소리가 궁궐까지
 사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퍼졌다.

손순은 그의 옛집에 절을 지어 ↔ 도둑 떼가 그 마을을 공격하는
 흥효사라 하고 그곳에 돌종을 외중에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았다
 안치하였다

손순매아 이야기의 갈등의 요소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효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가난’이다. 구전 유형에 따라 가난이 표면에 등장하기도 하고, 행간에 내재하기도 하지만,⁵² 대체로 가난이라는 극적 긴장감 속에 효자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극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아이의 등장이다. 아이로 인해 가난은 힘을 더하게 되고, 효자의 행위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려는 계획이 실행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다는 논리로 영아 희생이 합리화된다.⁵³ 변이 유형은 있지만, 〈손순매아〉 설화의 핵심 구조는 가난으로 인한 한계 상황과 그 상황의 해결책으로서의 영아 희생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희생제의가 시도되는 것이 극적 긴장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듯이, 〈손순매아〉 설화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자식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는 설화 향유자들에게 극적 긴장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52 윗글, 133.

53 우리 이야기에는 구전 및 문헌 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상투적으로 나타난다. 임재해, 윗글, 256.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흉년으로 인한 기근 등 여러 이유로 영아 유기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많은 설화에서 가난으로 인해 자식을 버리는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⁵⁴ 기근과 가난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은 금덩어리가 출토되거나, 종소리를 들은 임금의 조치를 취하는 등 주로 초자연적, 비현실적으로 해결된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자식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 따른다. 현실의 고난이 클수록 그 고난에 비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현실성이 요구된다. 그 결과 많은 설화에서 아이를 묻으려고 판 땅에서 금이나 석종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사정을 알아서 잘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해결책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바램으로, <손순매아> 이야기도 아케다 이야기처럼 현실적인 갈등의 상황과 극적 긴장감을 초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설화의 향유자들에게 영아 유기라는 비극적, 현실적인 문제가 문학적으로 해결되고, 여기에 '효'라는 가치와 이념이 강조되면 그 모든 일은 효행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

아케다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비장한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듯이, <손순매아>는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한 부부의 비극적이고 비장한 선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아이의 희생을 시도하여 효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극단적인 효의 실현을 강조한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순종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부각한 이야기이며, 인간 제사가 아닌 동물 제사로 대체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손순매아>의 경우 명확한 희생제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층위는 조금 다른 부

54 노영근, 윗글, 135.

분도 있다.

통상적으로 인간을 희생시키는 인신공희는 공동체의 평안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손순매아>에서 자식을 희생하려는 이유는 바로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달리 <손순매아>에서는 ‘희생제의’ 자체의 중요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아이를 묻는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는 신격 역시 없다. 오히려 ‘인신 희생’ 행위가 아닌 ‘효’를 행하는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이를 묻는 행위 그 자체는 일반적인 인신공희에서 행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지만, 아이를 묻는 행위가 일종의 제의적 의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손순매아> 설화에서는 인신공희에서 주로 행해지는 땅에 사람을 묻는 행위가 제의적인 의미보다는, ‘효’를 실행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따라서, <손순매아>에서는 인신공희로서의 의미는 퇴색되고, ‘효’라는 대의명분만 남는다. 인신공희의 보편적인 행위인 매아(埋兒)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제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담고 있다. 하지만, ‘효’라는 거대한 이념이나 명분이 내세워지면, 희생제의는 얼마든지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희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인식되거나 중요한 가치로서 기념될 가능성이 있다.

아케다 이야기처럼, <손순매아> 이야기도 자식 살해를 시도하지만,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희생제의를 되지 않는다. 인신공희에서 많이 행하는 형태인 매아의 행위를 시도했지만, 희생제의를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손순매아> 설화 자체에서는 이적이 나타나며 이러한 인신 희생을 종식시킨다. 효를 위해 희생물인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통해 오히려 희생제의를 와해되는 형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효’를 위해 자식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희생이 용인되면서 이 주제를 강조한다. 아브라

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생양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손순매아>도 아케다 이야기처럼 이적을 통해 인간 희생을 가치 있는 행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인신 희생제의의 윤리적 문제를 함께 부각시키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4. 인신제사를 통해 본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원형적 의미체계: 희생과 구원의 원리

인신공희 주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심청전>과 구약성서의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는 모두 제물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 안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대조적으로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주인공인 이야기이며, 이야기의 플롯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플롯 측면에서 <손순매아> 설화와 비교하면, 아케다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내레이션 속도의 감소 및 극적 묘사를 통해 좀 더 극적인 전개가 펼쳐진다.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주목한다면, <손순매아> 설화는 손순의 효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삭이나 손순의 아이는 마치 아버지의 믿음 또는 효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묘사되고 있고, 두 이야기는 ‘믿음’과 ‘효’를 강조하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만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자식을 죽여서라도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는 손순의 모습은 서로 대비가 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로 죽이려 하고, 손순은 자식을 땅에 묻기 위해 땅을 판다. 생명의 위협을 소재로 한 두 이야기의 플

www.kci.go.kr

롯은 위기의 절정을 맞이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능가하는 극적 전환점을 맞는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손순의 효심이 확인되면서 ‘희생’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손순의 효심이 밝혀진 이상, 사람이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죽음의 찰나에 아이는 구원되고, 아이를 죽이려던 아버지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시되지 않고 정당화되며, 오히려 믿음과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칭송의 대상이 된다. 두 이야기 모두 자식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각오로 믿음과 효를 이루면 축복이 주어지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삶의 가치를 가르친다. 생명을 잃을 뻔한 순간에 초월적 간섭함이 있게 되고, 독자는 자연스럽게 솟양과 석중의 출현을 신적 섭리로 이해한다.⁵⁵ 이러한 섭리의 장소는 훗날 ‘여호와 이레’와 ‘홍효사’라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 전승된다. 두 이야기는 성소의 유래를 설명하는 원인론적 이야기(Etiological Narrative)의 특징도 함께 보여준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손순의 가치보다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⁵⁶ 궁극적으로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레비-스트로스에는 모든 신화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신화의 변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 두 이야기는 일견 전혀 교집합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비록 변형된 형태일지라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인신공희 설화의 대표적인 원형적

55 이것은 독자가 텍스트가 전달하는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

56 해밀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적 체험의 장소를 ‘아브라함 사마’(아브라함이 순종했다)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은 결국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념한다. Hamilton, *윗글*(1995), 113-114.

의미체계는 일정 부분 보존하고 있다. 제의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의미는 신화적 인식과 관련지어 고찰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양한 ‘변형’이나 특징이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인식은 한국 창세신화에서 언급되는 어둠과 혼돈의 영원한 존재인 ‘카오스’(chaos)와 공간과 시간적 질서를 지닌 유한한 존재인 ‘코스모스’(cosmos) 간의 존재적 순환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⁵⁷

근본적으로 제의는 원형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의 근원인 카오스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음은 우주 공간을 초월하여 카오스로 돌아가는 상태이다. 제의에 사용되는 물, 불이나 희생 동물은 카오스의 상황으로 환원되어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제의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 역시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⁵⁸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가 개인 제의로서의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지만, 통상 인신공희는 마을이나 국가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하여 공동 제의로 행해졌다. 공동 제의의 성격 자체가 많은 사람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의의 효과를 보증할 수 있는 특별한 제물을 요구하게 되고, 카오스의 상황으로 환원시켜서 존재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물로 사람만한 대상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대인들의 제의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습속이 발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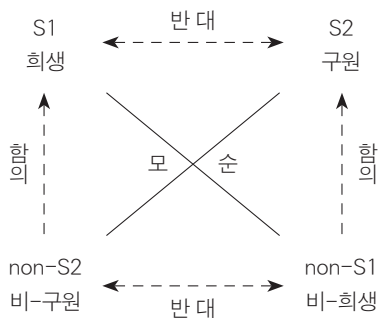
이런 인신공희의 습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기면서 점차 다른 제물로 대체하는 행위로 바뀌게 된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멈춘 사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 다른 제물로 바치는 행위의 가

57 오세정, “한국 창세신화 <창세기>에 나타난 신, 자연, 인간의 관계”, 『인간연구』 33권 (2017), 57-58.

58 최운식, 『윳글』, 289-290;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0), 416-417.

장 대표적인 구약성서의 유형이다. <손순매아> 설화 역시 변형된 형태이지만, 동물이 아니라 '석중'(또는 '금'[金])이 사람을 대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인신희생 제의를 모티프로 하는 아케다 이야기와 <손순매아> 설화는 극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두 이야기 안에는 영속성이라는 신화적 논리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다. 죽음과 재생, 또는 희생과 구원을 통해 사회는 영속하게 되고, 이 영속성을 위해서는 대체가 필요하다. 아케다 이야기에서는 숫양이, <손순매아>에서는 석중이 희생 제물을 대체한다.

아브라함의 이삭 변제 사건(창 22:1-19)과 <손순매아> 설화에서 인신제사와 관련된 원초적 구성 요소는 '희생'과 '구원'이며, 이를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는 '희생'과 '구원'의 상호작용이 심층구조의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인신희생 제의'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희생제이가 시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희생제의로 여겨지지 않는다. 희생되어야 할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고, 믿음 또는 효의 행위가 인신제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제의를 거행했지만, 희생양은 구원되며 결과적으로 희생제이가 아니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제시된 것이다.

결국, 두 이야기 모두 인신희생 제의가 모티프였지만, 궁극적으로 인신 희생의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인신 희생의 종식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믿음’과 ‘효’의 가치를 강조한다.

5. 나가는 말

고대인들은 신이나 왕이 생명체의 출생이나, 번식, 또는 풍요를 주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그래서, 신이나 왕이 그러한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고 성별한 사람이나 왕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카오스적인 상황을 만들고 존재의 순환을 통해 그 능력이 보강될 수 있는 의식을 행하였다.⁵⁹ 전 세계의 대표적인 문헌 기록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신제사는 세계 여러 민족이 실제로 행했던 습속이지만,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을 희생시키는 의식으로 바뀌어 간다. 창세기 22장과 <손순매아> 설화도 인신제사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인신제사와 관련된 설화에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지만, 인신 희생 제의를 시행했던 믿음 또는 세계관에는 제물로 희생되는 인간이 죽음을 통해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믿고, 원시의 상태인 카오스(chaos) 상태로의 환원을 도모하는 데 그 원형적 본질이 있다. 그러한 카오스 상태에서 존재를 획득하고 지속하려는 것으로, 비록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지라도 근본적으로 존재의 순환과 축진에 그 의미와 기능을 두고 있는 인신제사 설화가 많다. 동양적 사고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순환을 믿는 원본사고(原本思考)의 행동적 표현으로, 인간의 희생이 존재의

59 최운식, *윳글*, 291.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행위로 여겨진다.⁶⁰ 이러한 인신제사의 습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기면서 점차 다른 제물로 대체하는 행위로 바뀌게 된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 대신에 숫양이, <손순매아> 설화에서는 변형된 형태이지만 석종이 이를 대체한다.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_____, 「현대 기호학 강의」(서울: 민음사, 1998).
- 김태근, 「한국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980).
-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온지논총』 26권 (2010), 113-140.
- 박경식,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구약적 해석 연구와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방법을 통한 지도자 교육교재 개발”, 『구약논단』 86집 (2022), 215-245.
-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_____,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희생설화와 희생양상」, 『한국민속학』 17권 (1984), 65-74.
- 박신배, “구조주의 방법과 출애굽기 1장 연구”, 『신학과 목회』 32권 (2009), 37-59.
- 박종성, “한국·동유럽 구비시가 비교연구의 한 측면: 인신공희 주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5권 (2002), 387-427.
- 박종수, 「히브리 설화 연구: 한국인의 문화통전적 성서이해」(안양: 글터, 1995).
- 서명수, “뉴 노멀 시대에 구약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85집 (2022), 340-371.
- _____,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 『구약논단』 58집 (2015), 209-231.
- _____,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 (2003), 7-25.

60 윗글, 291.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서울: 민음사, 1998).
- 신호림, “희생제의 전통의 와해와 기괴한 효행담의 탄생: <죽은 아들을 묻은 효부>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1권 (2016), 241-269.
- 오세정, “한국 창세신화 <창세가>에 나타난 신, 자연, 인간의 관계”, 「인간연구」 33권 (2017), 47-74.
- 우진형,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창 22장 1-19절의 편집 비평적 접근”, 「구약논단」 32집 (2009), 132-150.
-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422권 (1994), 192-202.
- 임재해, “순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권 (1990), 235-265.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종교 연구”, 「구약논단」 8집 (2000), 151-174.
- _____,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 「구약논단」 40집 (2011), 6-9.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서울: 서울대출판부, 1970).
- 최기수,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호세아서 1장 연구”, 「구약논단」 21집 (2006), 108-124.
-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서울: 민속원, 2002).
- 최영희, “한국 인신공희 설화의 연구”, 「문창어문논집」 17집 (1980), 137-153.
- 하경지,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제사: 인신공희 설화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52호 (2022), 241-268.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Gunkel, Hermann, *Genesis*, Mark E. Biddle(tran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Greimas, Algirdas Julien and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0).
- Kunin, Seth D., *The Logic of Incest: A Structuralist Analysis of Hebrew Mythology* (JSOTSup 1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 _____,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2; Grand Rapids: Eerdmans, 1995).
- Hartley, John E.,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2).

- Kierkegaard, Søren, *Fear and Trembling*, Alastair Hannay(trans.), (London: Penguin Books, 1985).
- Patte, Daniel, "Structural Criticism", Steven L. Mckenzie and Stephen R. Haynes(eds.), *To Each Its Own Meaning: Biblical Criticism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83-200.
- Skinner,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New York, Scribner, 1910).
- Vaux, Roland de, *Studies in Old Testament Sacrific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1964).
-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Books, 1994).

검색어

창세기, 한국전통설화, 종교적 심층구조, 인신제사, 아브라함, 손순매아

[ABSTRACT]

A Structuralist Interpretation of Religious Deep Structure on Human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and Korean Traditional Folktales: Focusing on Genesis 22 and *Son-Soon Mae-A* Folktale

Il-Seung Chung
Asia LIF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Algirdas J. Greimas's "semiotic model" as a research methodology, and to analyze and demonstrate religious and archetypal deep structure by comparing Abraham's offering of Isaac (Gen 22: 1-19) in the book of Genesis with the folktale of *Son-Soon Mae-A*, which is similar in its literary structure and contents to Genesis 22.

The story of human sacrifice is based on the actual practice of human sacrifice and is widely passed down not only in the Old Testament, but also in Korea, Japan, China, Europe, and other countries. The worldview behind human sacrifices has its original essence in believing that sacrifices become the source of existence through death and promote the return to the primitive state of chaos. It is to acquire and continue its existence in the primitive chaos state among the interactions of "chaos" and "order" in the beginning. The story of human sacrifice fundamentally has its meaning and function in the circulation and promotion of existence, even if various "modifications" exist.

However, the mythical archetypes derived from the custom of human

www.kci.go.kr

sacrifice changed over time toward the act of respecting human life and replacing it with other offerings. In Genesis 22, a “ram” replaces Isaac, and a “stone bell” in the folktale of *Son-Soon Mae-A* serves, in a modified form, as a replacement for Son-Soon’s child. In Genesis 22 and the folktale of *Son-Soon Mae-A*, the interaction between “sacrifice” and “rescue” constitutes a deep structure of meaning system. In both stories, sacrifice to kill children is an important motif, but as a result, the child to be sacrificed is not sacrificed, and the protagonist’s faith and filial piety stop the sacrifice, highlighting ethical issues.

key words

Genesis, Korean Traditional Folktales, Religious Deep Structure, Human Sacrifice, Abraham, Son-Soon Mae-A

투고일 : 2023년 07월 16일

심사일 : 2023년 07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